

# 체계적 접근법에 의거한 가정생활설계의 진단기준 마련 및 진단기준의 적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agnose Scale for Family Life Planning based on the Systems Approach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부교수 송혜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우석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부 가정복지학 전공  
부교수 이승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유경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구혜령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ociate Prof. : Song, Hye-Rim

Dept. of Consumer Science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Lee, Ki-Young

Dept. of Family Welfare, Woosuk Univ.

Associate Prof. : Lee, Seung-Mi

Dept. of Consumer Science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Kim, Yoo-K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art-time Lecture : Koo, Hyer-Yong

---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defining and applying the diagnose scales to the household life in context with the family life planning based on the systems approach. In this study the household life consisted in 4 life subareas, i.e. time use, nonhuman resources(housing and durable goods), household financial and communication/problem solving competence of family members.

Data were collected from 1200 full-time housewives who live in Seoul, Kyungki, Chungbuk, Jeonnam and Jeonbuk, Kyungnam and Kyungbuk and have at least 1 child in school 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4 areas of household life are in the level under the diagnose scale tot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systematic family life planning and the problem solving of general household life. And the scales that are investig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the self family life diagnose program.

---

▲ 주요어 (key words) : 가정자원관리(household resource management), 가정생활설계(family life planning), 진단(diagnose), 체계적 접근법(systems approach)

## I. 들어가기

학문의 전문성, 취업과의 연계가 점점 중시되어 가는 최근의 학문적 분위기는 각 연구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관점과 방법, 적용방안 및 실천전략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는 자극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자원관리학 분야 전공자들이 주목해 온 주제 중 하나는, 가정자원관리학의 연구내용과 결과들을 어떻게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연구분야의 실천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다. 실천학문으로서 가정학이 그렇듯이, 가정자원관리학 역시 전공자들의 취업 그리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두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구해 왔던 것이다 (이기영·구혜령·송혜림·이승미, 2001 ; 구혜령·조영희, 2000 ; 송혜림, 2000). 이처럼 그동안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축적한 연구결과를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척도의 형태로 개발하려고 노력한 결과의 하나가 가정생활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가정생활설계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분석과 진단,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리과정이며 자원의 제약성 하에서 각 생활주기마다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합리적 계획과 그 수행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정자원관리학 연구분야에서 통합적 관점을 갖고 가정생활에 접근하는 유용한 틀로 개발·연구되어오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자원관리학 분야의 실천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적용·종합하여 가정생활설계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구하여 왔다 (임정빈, 1997 ; 송혜림, 1999 ; 지영숙·이영호, 2000). 가정생활설계의 과정을 통하여 개별가정은 사용가능한 자원의 제약 하에 각 가정생활주기별 과제를 수행하고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기영 등(1998)은 가정생활설계의 주요 단계를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조사, 분석, 진단, 대안마련(계획), 실행 그리고 통제 등 일련의 관리과정으로 개념화시키고 있다. 또한 독일의 가정학자 v.Schweitzer(1968) 역시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정생활설계의 구조를 크게 분석과 진단 그리고 계획으로 구별하여 관리과정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가정생활설계에서는 대상가정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일정한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진단함으로써 해당 가정의 강점은 보다 강화시키고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가정생활설계를 하나의 관리과정으로 파악하는 체계적 접근법의 관점이 유용한 이유는, 주어

진 조건 즉 자원과 요구라는 투입(input)에 대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과정으로서의 가정생활설계의 각 단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결과(output)가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관리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차원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가정생활설계를 통하여 가정자원관리학의 실천성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는 맥락에서,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한 가정생활설계의 구체적 적용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때 가정생활설계의 단계 중에서 '진단'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조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다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혹은 척도가 있어야 그에 근거해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결을 위한 혹은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진단과정을 합리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들이 체계화 되어야 가정생활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 기준 마련과 적용이 모색되고 그 결과가 축적되어 가정생활설계의 전문화 및 전공생의 취업진로 확장 등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영역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한 다음,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실제 조사한 가정생활의 영역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한 가정생활진단척도로 보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보급도 가능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 1. 가정생활설계의 개념

이기영 등(1998)은 생활설계를 개인 및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장래성 있는 계획으로 파악하며 더 나아가서 개인 및 가족원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관한 구체안을 보이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주거공간, 생활시간, 가사노동, 재무 등의 영역으로 가정생활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가정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생활설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생활설계를 여러 삶의 분야(측면)를 진열하고, 과거·현재·미래를 헤아려 주제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영숙·이영호, 2001) 생활설계의 개념에 자원 그리고 실천이라는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가정학자들은 가정생활설계의 개념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마련과 계획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오카

\* 본 논문은 2001년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사)가정생활개선진흥회가 본 연구자들에게 위탁한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 송혜림(E-mail : hrsong@mail.ulsan.ac.kr)

무라는 가정생활설계를 파악함에 있어 생활변화에의 대응, 주제성 그리고 계획성 등 세가지 차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마이는 생활설계를 위해 생활을 종합적으로 보는 체계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영 외, 1998:4-5 재인용). 또한 다나베(1968)는 일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 실천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하여 (지영숙·이영호, 2001 재인용) 생활설계의 장기성 그리고 계획보다 더 넓은 실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60년도에 이미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분석과 진단, 계획으로 이어지는 가정생활설계의 기본틀을 마련한 v.Schweitzer(1968)는 가정생활의 영역을 크게 인적 체계, 노동기능적 체계, 금전관리체계로 구분하고 여기에 전반적인 가정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더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는 가사노동, 생활시간사용, 재무관리, 주거상태, 지역사회환경 등의 세부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 다음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진단하여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설계의 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2. 가정생활설계와 진단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진단은 가정생활설계에 있어 조사와 분석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평가하여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대략적 범주를 지정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이기영 외, 1998). 즉 현재 가정생활이 처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틀을 설정하는 단계가 바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연구에서 김혜선과 박희성(2001)은 진단의 개념에 대해,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여 평가한 다음,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실태를 진단하여 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왜 문제이고 취약점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예컨대 어떤 가계를 저소득가계라고 규정할 때에는 월소득, 자산 등의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가계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기영 등(1998)은 진단의 기준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성과 합목적성이다. 일반성은 보편적으로 어떤 가정이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해당 가정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얼마나 같고 다른가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합목적성은 대상가정의 가치, 목표 등을 점검하여 생활의 각 영역별 실태가 얼마나 이러한 가치지향성이나 목표에 합치되도록 관리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지영숙·이영호(2001)도 생활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생활구조를 점검하여 현재의 모습(수

준)과 지향하는 모습(표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해야 하는데, 이때 생활진단표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여, 생활설계에서 진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기영 등(2001)은 가정생활설계의 분석과 진단을 위하여 가정생활을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보편성과 합목적성과는 다른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생활시간 영역에서는 균형성, 즉 생활영역별 생활시간 분배가 얼마나 균형적으로 되고 있는가, 혹은 생활공간 영역에서는 적합성, 즉 가족원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공간인가 등을 분석과 진단을 위한 기준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시도한 바 있다.

## 3. 가정생활설계와 체계적 접근법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적용시켜 온 접근법의 하나가 체계적 접근법인데, 이는 가정을 여러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전체체계로 보면서, 하위체계와 체계, 환경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가족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관리과정의 역동성 등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을 시도한 디콘과 파이어바하(Deacon & Firebauch, 1988)는 가족체계를 크게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별하여, 인적 체계와 관리적 체계간의 상호작용, 환경의 영향과 그에 대한 반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가정생활설계의 틀을 설정한 v.Schweitzer(1983) 역시 가정생활체계를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때 인적 체계는 그 가족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가치, 목표 등과 관련되며 관리적 체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배분과 사용 등과 관련된다고 하여 하위체계 간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 접근법에 따른 가정생활설계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련되는 가족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적 하위체계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정생활주기별로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기영 등(1998)은 가정생활설계에서 체계적 접근법이 유용한 근거를, 체계적 접근법 자체가 관리과정의 역동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가정생활설계가 대상가정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진단하며 개선계획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는 체계적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관리과정(throughput)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 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 진단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므로 무엇보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역화할 것인가 그리고 진단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기영 외(1999) 연구자들은 가정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기영 외(1998)가 제시한 생활설계구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기초, 노동과 취미 그리고 심신의 건강 등 세 영역으로 구별하여 생활설계를 전개시키고 있다.

한편 생활설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지영숙·이영호(2001)는 가정생활 자체를 기본 요소들의 상호관련성에 의한 통합체라는 시각에서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가정생활의 구조를 인간적 요소, 물질적 요소 그리고 관리적 요소의 통합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체는 구체적으로 건강, 정신, 인간관계, 경제, 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기술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이기영 등(2001)은 가정생활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에서 체계적 접근법과 생활구조론, 가정생활설계론 등을 종합하여 가정생활을 크게 여덟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즉 생활철학, 인적자원의 능력과 개발, 생활시간의 균형, 생활공간의 적합성, 물질 자원의 적합성, 가계경제의 안정도, 가정관리의 촉진 그리고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 등이 그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여덟가지 영역에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척도를 만들었으나, 실제로 문항수가 너무 많아 일반 가정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되 전반적인 가정생활설계의 틀 속에서 특별히 '진단'과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가정생활설계의 진단과정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생활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자원관리 연구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모색으로 가정생활설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가정자원관리의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가정생활의 구조를 구분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가정생활영역을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활시간 영역, 물질 자원 영역, 가계경제 영역 그리고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으로 나누고자 한다.

생활철학, 인적자원의 능력과 개발 영역은 실제 가정생활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주관적 속성이 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생활설계 과정에서 '진단'척도로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생활시간영역, 물질 자원 영역, 가계경제 영역 및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으로 가정생활을 구분한 다음,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영역에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전체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가정생활설계의 진단과정에 사용할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며,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생활을 크게 네 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분류된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로 진단을 위한 내용을 구성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조사한 다음, 본 연구에서 만든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적인 진단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될 질문지 작성을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가정생활의 영역별 진단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생활시간 영역에서는 주부의 시간사용실태와 여가참여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물질 자원 영역에서는 주거규모, 주거공간과 주택, 내구재보유 정도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소득과 지출의 균형, 자산상태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넷째,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빈도, 의사결정과 적응력,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가사분담실태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진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생활시간 영역의 문항 구성을 위해서는 이기영 외(1994)의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이승미(1997)의 가족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조희금(1993)의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물질 자원 영역의 문항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1997)의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이정우(1992)의 가정기구관리론, 홍형옥 등(1998)의 서울시 거주자의 주택상당과 자료 요구도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하였으며,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김경자(1998)의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성영애·양세정(1995)의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황덕순(1998)의 가계의 재정적 안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에서는 어은주·유영주(1995)의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김수연·김득성(1997)의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II, 민하영(1992)의 청소년비행정도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최연실(1996)의 가족 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고찰 등을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 2. 조사대상

가정생활설계의 진단기준 마련 및 적용을 위한 질문지조사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먼저 가정생활주기이다. 그 이유는 가정생활주기별로 가족원의 목표와 수행 과제, 가족원의 요구, 자원의 양과 질 등이 차이이며, 따라서 가정생활설계에 있어서 가정생활주기는 한 가정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지향적 과제 선정 및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행동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한 생활주기에 적절한 진단기준을 일단 마련하고자 하

며, 이를 기초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생활주기별 척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학령기인 전업주부의 가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가정은 가정의 성장기에 해당되며, 미래의 충족적인 가정생활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이 시기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되어 다양한 발달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사료되며, 비율로 볼 때 아직은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가 더 많고, 전업주부의 가정이 보다 보편적인 가정생활의 실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업주부 가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지역이라는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가정생활주기는 한 단계로 제한하지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역은 가능한 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호남(광주와 전주), 영남(대구와 울산) 그리고 충청(청주) 지역 등에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총 7개 지역의 학령기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서울 250부, 경기 150부, 광주 150부, 전주 200부, 대구 100부, 울산 200부, 청주 150부 등 총 1200부의 질문지를 2001년도 9월 한 달동안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서울 267부, 경기 100부, 청주 143부, 광주와 전주 234부, 대구와 울산 251부 등 총 995부를 최종적인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 3. 분석방법

조사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s(10.0) Program의 빈도분포통계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의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의 <표 1>을 볼 때, 조사대상주부와 남편 모두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주부의 평균연령은 46.8세, 남편은 49.6세로 평균 2.8세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인 2.8세와 동일하다. 또한 학력분포를 보면 주부의 경우 고졸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그 다음이 대졸인데 비하여, 남편은 대졸이 52.4%이고 고졸이 35.7%로 주부보다 남편의 학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빈도(%)

|        |            | 주부        | 남편        |           |
|--------|------------|-----------|-----------|-----------|
| 연령     | 20대        | 13( 1.3)  | 2( 0.2)   |           |
|        | 30대        | 672(76.6) | 506(49.9) |           |
|        | 40대        | 217(21.8) | 465(46.7) |           |
|        | 50대        | 3( 0.3)   | 22( 2.2)  |           |
|        | 평균연령       | 36.8세     | 39.6세     |           |
| 학력     | 중졸이하       | 25( 2.5)  | 14( 1.4)  |           |
|        | 고졸         | 553(56.6) | 355(35.7) |           |
|        | 대졸         | 388(39.0) | 521(52.4) |           |
|        | 대학원졸+      | 22( 2.2)  | 97( 9.7)  |           |
|        | 무응답        | 7( 0.7)   | 8( 0.8)   |           |
| 결혼년수   | 10년미만      | 267(26.8) | 월소득       |           |
|        | 10-14년     | 555(75.8) | 100만원 미만  | 9( 1.0)   |
|        | 15-20년     | 132(14.3) | 100-199만원 | 240(25.8) |
|        | 20-29년     | 29( 2.9)  | 200-299만원 | 354(38.1) |
|        | 무응답        | 2( 0.2)   | 300-399만원 | 197(21.2) |
|        | 평균년수       | 11.5년     | 400만원+    | 129(13.9) |
| 남편의 직업 | 단순노무직      | 8( 0.8)   | 월지출       |           |
|        | 고용된 생산기능직  | 131(13.2) | 100만원 미만  | 61( 6.6)  |
|        | 고용된 판매기술직  | 19( 1.9)  | 100-199만원 | 431(46.4) |
|        | 자영기술/기능인   | 56( 5.6)  | 200-299만원 | 331(35.7) |
|        | 자영상인(9인이하) | 162(16.3) | 300-399만원 | 80( 8.6)  |
|        | 자영상인(9인이상) | 46( 4.6)  | 400만원+    | 25( 2.7)  |
|        | 사무직        | 178(17.9) | 계층의식      |           |
|        | 전문기술직      | 85( 8.5)  | 상층        | 7( 0.7)   |
|        | 경영관리직      | 159(16.0) | 중상        | 99(10.0)  |
|        | 전문직        | 39( 3.9)  | 중중        | 441(44.5) |
|        | 자유직        | 39( 3.9)  | 중하        | 369(37.2) |
|        | 기타         | 37( 3.7)  | 하층        | 75( 7.6)  |
|        | 무응답        | 6( 0.6)   |           |           |

조사대상주부와 남편의 결혼년수는 10-14년이 75.8%로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 결혼년수는 11.5년이다. 남편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과 종업원 9인 이하의 자영업, 경영관리직이 각각 17.9%, 16%.3%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고용된 생산기술직(13.2%)이며 나머지 직업은 10%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월소득을 보면 200-299만원 사이가 38.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00-199만원, 300-399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지출액을 보면 100-199만원 사이가 4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200-299만원(35.7%)이다. 조사대상자의 계층의식도 함께 질문하였는데, 자신의 가정을 중의 중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44.5%) 그 다음이 중의 하층(37.2%), 중의 상층(10%) 그리고 하층(7.6%)의 순이며, 상층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는 매우 적었다 (0.7%).

### 2. 결과해석

#### 1) 영역별 진단기준의 선정

가정생활의 영역별 진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1) 2000년 여성의 초혼연령은 26.5세, 남성은 29.3세로 남녀의 연령차이가 평균 2.8세이다 (한국여성개발원, 2001:61).

조사된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선정하였다.

### (1) 생활시간 영역

생활시간 영역에서는 각 활동별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진단의 기준으로 삼아, 조사대상 전체의 평균시간과 비교한다. 이렇게 되면, 조사대상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시간량이 생활시간 영역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전체집단의 평균시간이 기준시간과 비교하여 얼마나 같고 다른가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

### (2) 물적 자원 영역

물적 자원 영역에서는 주택과 내구재로 구분하여, 주택의 경우 평균 주택면적 및 가족원 1인당 면적, 평균 방갯수 및 방당 가족원수 등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진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응답자들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주택면적, 방수 등이 진단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물적 자원 영역의 또 다른 내용으로 내구재 보유에 대한 문항에서는, 내구재 보유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의 평균 내구재 보유갯수 그리고 이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내구재의 종류와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전체집단의 평균점수와 비교, 진단할 수 있다.

### (3) 가계경제 영역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소득액, 월평균지출액, 자산액을 계산하여 이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 진단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소득액과 지출액, 자산액 등에 비하여 전체집단의 평균액수가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가계경제영역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 (4)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

마지막으로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에서는, 가족관계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 집단의 의사소통 평균점수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평균점수를 진단기준으로 하여, 전체집단의 의사소통점수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비교,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진단의 기준이 되어 만족하는 집단이 준거집단이 될 것이며, 만족하는 집단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진단기준이 되어 전체집단을 진단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다.

### 2) 진단기준의 적용

이러한 진단기준에 따라 준거집단의 점수를 계산하여 전체집단의 평균점수와 비교한 진단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활시간영역

조사대상자인 부인의 생활시간영역별 하루 평균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으며, 여가활동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참여정도 및 참여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먼저 부인의 생활시간 영역별 하루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수면은 6시간 57분, 식생활관련 집안일은 3시간 2분, 의생활관련 집안일은 1시간 25분, 주생활관련 집안일은 1시간 29분,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의 경우는 2시간 44분, 구매 및 가계관리의 경우는 1시간 9분, TV시청은 2시간 23분, 가족과의 단란은 1시간 46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의 영역별 평균시간을

<표 2> 부인의 생활시간영역별 진단기준과 적용 결과

(시간단위 : 분)

| 활 동   | 전체대상자의 평균시간<br>단위:분(표준편차)<br>N=995명 | 활동별 시간에 대한 평가 |               |               |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의<br>평균시간<br>단위:분(표준편차) |
|---|-------------------------------------|---------------|---------------|---------------|-------------------------------------|
|   |                                     | 줄여야함          | 적당함           | 늘려야함          |                                     |
| 수면  | 417.5 (72.7)                        | 193<br>(19.8) | 621<br>(63.8) | 160<br>(16.4) | 419.8 (60.9)                        |
| 식생활관련 집안일<br>(식사준비, 상차리기, 설거지 등)                      | 182.0 (78.9)                        | 241 (24.9)    | 634 (65.6)    | 92<br>(9.5)   | 173.5 (70.9)                        |
| 의생활관련 집안일<br>(세탁, 다림질, 옷 정리, 옷수선 등)                   | 84.9 (45.8)                         | 138<br>(14.3) | 699<br>(72.5) | 127<br>(13.2) | 82.3 (41.7)                         |
| 주생활관련 집안일<br>(청소, 집안정리, 쓰레기처리 등)                      | 89.3 (50.5)                         | 169<br>(17.5) | 666<br>(69.1) | 129<br>(13.4) | 86.0 (50.0)                         |
|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 (아이돌보기, 놀이주기, 숙제<br>봐주기, 남편땀바라지, 노인돌보기 등) | 164.3 (157.6)                       | 122<br>(12.7) | 499<br>(52.0) | 338<br>(35.3) | 150.2 (99.1)                        |
| 구매 및 가계관리<br>(장보기, 은행/동사무소 일보기 등)                     | 69.5 (39.9)                         | 88<br>(9.4)   | 776<br>(82.6) | 75<br>(8.0)   | 68.4 (37.8)                         |
| TV 시청 (비디오 보기 포함)                                     | 143.3 (89.8)                        | 277<br>(28.7) | 597<br>(62.0) | 90<br>(9.3)   | 125.6 (70.3)                        |
| 가족과의 단란<br>(가족/자녀와의 대화, 잡담 등)                         | 106.85 (79.9)                       | 24<br>(2.5)   | 377<br>(38.8) | 569<br>(58.7) | 130.0 (88.9)                        |

살펴보면, 수면시간은 420분으로 하루 평균 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관련 집안일은 2.9시간, 의생활관련 집안일은 1.3시간, 주생활관련 집안일은 1.4시간, 가족원 돌보기는 2.5시간, 구매 및 가계관리는 1.1시간, TV시청은 2.1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단란은 2.2시간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시간과 비교하여 진단하여 보면, 전체 평균 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 영역은 수면, 의생활관련 집안일, 주생활관련 집안일, 구매 및 가계관리로 나타났다. 반면 식생활관련 집안일, 가족원 돌보기, TV시청은 적절하다고 응답한 평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량을 배분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의 단란은 적절하다고 응답한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인은 가족과의 단란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희망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적절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시간에 훨씬 못 미쳐 가족과의 단란시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결과에 있어서,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적절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시간인 150.2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량(164.3분)을 배분함에도 불구하고, 35.3%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가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자녀 및 가족원 돌보기에 있어 예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이돌보기, 놀아주기, 숙제봐주기 등 자녀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며, 대상가족이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자녀돌보기와 관련된 일에 배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다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에서 자

녀돌보기와 관련된 생활영역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자녀돌보기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표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여가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여가활동 참여경도와 참여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사회봉사활동(70%), 강습 및 취미활동(48%), 종교활동(47%), 운동(45%), 문화활동(33%)은 다른 응답보다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모임이나 교제의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45%)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나들이나 여행의 경우 역시 한 달에 한두 번(3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하여 운동, 강습이나 취미활동, 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가족나들이나 여행에서는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평가한 대상자의 여가활동 참여경도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여가활동 참여경도를 진단해 보면, 운동에서 적당하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이 거의 매일(55.5%)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전체 집단의 경우 거의 안 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아 (45.5%), 운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임이나 교제에서 적당하다고 평가한 대상자들은 한 달에 한두 번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54.6%), 그 다음이 1주일에 한 번이다. 전체집단의 경우에도 비율만 약간 다를 뿐 그 순서에서

<표 3> 부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진단기준과 적용

단위 : 빈도(%)

| 여가활동유형   | 여가활동 참여경도 빈도(%) |               |               |             |               |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 빈도(%) |               |               |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여가활동 참여경도 빈도(%) |               |               |             |               |
|----------|-----------------|---------------|---------------|-------------|---------------|----------------------|---------------|---------------|------------------------------|---------------|---------------|-------------|---------------|
|          | 거의 매일           | 1주일에 한두번      | 한달에 한두번       | 6개월에 한두번    | 거의 안함         | 줄여야 함                | 적당함           | 늘려야 함         | 거의 매일                        | 1주일에 한두번      | 한달에 한두번       | 6개월에 한두번    | 거의 안함         |
| 운동       | 177<br>(19.5)   | 201<br>(22.1) | 96<br>(10.6)  | 21<br>(2.3) | 413<br>(45.5) | 63<br>(6.5)          | 253<br>(26.2) | 649<br>(67.3) | 135<br>(55.5)                | 66<br>(26.5)  | 19<br>(6.7)   | 4<br>(0.4)  | 29<br>(10.9)  |
| 모임이나 교제  | 67<br>(7.4)     | 235<br>(26.0) | 403<br>(44.6) | 83<br>(9.1) | 116<br>(12.8) | 95<br>(9.9)          | 577<br>(59.8) | 292<br>(30.3) | 29<br>(4.3)                  | 189<br>(34.1) | 301<br>(54.6) | 39<br>(5.3) | 19<br>(1.7)   |
| 강습, 취미활동 | 66<br>(7.3)     | 192<br>(21.2) | 147<br>(16.2) | 65<br>(7.1) | 437<br>(48.2) | 48<br>(5.0)          | 322<br>(33.5) | 590<br>(61.5) | 53<br>(16.1)                 | 144<br>(46.5) | 61<br>(18.7)  | 18<br>(4.7) | 46<br>(14.0)  |
| 종교활동     | 62<br>(6.8)     | 281<br>(31.0) | 83<br>(9.1)   | 58<br>(6.4) | 424<br>(46.7) | 62<br>(6.6)          | 472<br>(50.1) | 408<br>(43.3) | 40<br>(8.3)                  | 205<br>(44.0) | 49<br>(10.1)  | 16<br>(3.0) | 162<br>(34.6) |

| 여가활동유형                | 여가활동 참여경도 빈도(%) |               |               |               |               |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 빈도(%) |               |               |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여가활동 참여경도 빈도(%) |               |              |             |              |
|-----------------------|-----------------|---------------|---------------|---------------|---------------|----------------------|---------------|---------------|------------------------------|---------------|--------------|-------------|--------------|
|                       | 1주일에 한번이상       | 한달에 한두번       | 6개월에 한두번      | 1년에 한두번       | 거의 안함         | 줄여야 함                | 적당함           | 늘려야 함         | 1주일에 한번 이상                   | 한달에 한두번       | 6개월에 한두번     | 1년에 한두번     | 거의 안함        |
| 음악회, 전시회, 음악감상 등 문화활동 | 30<br>(2.2)     | 221<br>(24.4) | 223<br>(24.6) | 147<br>(16.2) | 296<br>(32.6) | 52<br>(5.4)          | 213<br>(22.2) | 696<br>(72.4) | 17<br>(7.1)                  | 122<br>(59.9) | 47<br>(22.3) | 13<br>(5.1) | 14<br>(5.6)  |
| 사회봉사활동                | 34<br>(3.7)     | 88<br>(9.8)   | 73<br>(8.0)   | 82<br>(9.0)   | 630<br>(69.5) | 31<br>(3.2)          | 171<br>(18.0) | 752<br>(78.8) | 24<br>(13.8)                 | 51<br>(30.0)  | 30<br>(17.5) | 16<br>(9.4) | 50<br>(29.4) |
| 가족나들이나 여행             | 51<br>(5.6)     | 327<br>(35.9) | 256<br>(28.1) | 170<br>(18.7) | 106<br>(11.6) | 60<br>(6.3)          | 381<br>(39.6) | 519<br>(54.1) | 43<br>(10.8)                 | 206<br>(55.8) | 88<br>(23.5) | 39<br>(9.6) | 5<br>(0.6)   |

는 동일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강습과 취미활동에서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1주일에 한두 번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46.5%), 이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전체집단의 경우에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거의 안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48.2%) 강습과 취미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이 더 증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활동에 있어서는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44%가 1주일에 한두 번, 34.6%가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체집단의 경우에는 거의 안한다는 비율(46.7%)이 1주일에 한두번 한다는 비율(31.0%)보다 더 높아, 전체집단이 준거집단에 비하여 종교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음악회, 전시회, 영화감상 등의 문화활동이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한달에 한두번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59.9%), 그에 비해 전체집단은 거의 안한다는 비율(32.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개월에 한두번(24.6%), 한달에 한두번(24.4%)의 순으로 나와, 준거집단에 비하여 문화활동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사회봉사활동을 적당히 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한달에 한두번(30%), 거의 안함(29.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집단에서는 절대다수가 거의 안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69.5%), 이 영역에서도 전체집단이 준거집단에 비하여 시간배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나들이나 여행이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번 하는 비율(55.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개월에 한두번(23.1%)로 나타났는데, 전체집단 역시 한달에 한두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35.9%) 그 다음이 6개월에 한두번 한다는 비율(28.1%)로 나타나 준거집단과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여가활동 전반에 있어 모임이나 교제, 종교활동에서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여야 한다거나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많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일관되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비율적으로 제일 높아, 여가활동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물적 자원 영역

물적 자원 영역에서는 조사대상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 그리고 내구재 보유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 ① 주택 및 주거환경

조사대상 가정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가 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독주택(17.9%)이며, 자가인 경우가 64.8%이고 전세가 29.9%이다. 주택면적과 가족원 1인당 면적 및 이를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평균수치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평균 주택면적 및 가족원 1인당 면적에 대한 진단  
단위 : 평

|        | 전체평균(표준편차) |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의 평균(표준편차) |
|--------|------------|------------------------|
| 주택면적   | 27.1(8.95) | 29.0(7.98)             |
| 1인당 면적 | 6.6(2.27)  | 7.1(2.08)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53.2%이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평균 주택면적은 29평인데 비하여 전체집단의 주택면적은 27.1평으로 기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1인당 면적 역시 전체집단의 수치가 더 적다.

<표 5> 평균 방갯수 및 방당 가족원수에 대한 진단  
단위 : 개

|         | 전체평균(표준편차)  |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의 평균(표준편차) |
|---------|-------------|------------------------|
| 방갯수     | 2.86( .59)  | 3.03( .59)             |
| 1인당 방갯수 | 0.70( .18)  | 0.75( .16)             |
| 방당 가족원수 | 1.53( .46)명 | 1.39( .33)명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갯수가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은 전체집단의 62.5%이다. 이 집단이 사용하는 방갯수는 평균 3.03개이며, 전체평균은 2.86개이다. 또한 1인당 방갯수가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평균은 0.75개이며, 전체집단의 평균은 0.7개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집단이 사용하는 방갯수는 전반적으로 기준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방당 가족원수가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평균 수치 1.39명에 비하여 전체집단의 평균 수치가 1.53명으로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 ② 내구재 보유

조사대상가족의 내구재 보유상태를 보면 전자레인지,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진공청소기, PC, 칼라TV(대형), 냉장고(대형), 승용차(중형)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 이에 비하여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정수기, 캠코더, 노트북, 에어컨, 피아노, 칼라TV(소형), 냉장고(소형), 승용차(소형), 스키세트, 골프세트 등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표 6> 내구재 보유에 대한 진단

| 전체 집단의 내구재 평균 보유갯수(표준편차) |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의 평균 보유갯수(표준편차) |
|--------------------------|-----------------------------|
| 11.9개(2.45)              | 12.7개(3.35)                 |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유한 내구재 개수에 만족하는 집단은 평균 12.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집단의 평균 보유개수는 11.9개로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한편 내구재 보유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내구재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적당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80% 이상이 전자렌지,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청소기,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50-79%의 응답자는 정수기, 피아노, 대형냉장고, 중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응답자의 30-49%는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 캠코더, 에어컨, 소형냉장고, 소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10-29%는 식기세척기, 노트북, 골프세트 그리고 10%미만의 응답자가 의류건조기, 스키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내구재별로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내구재 보유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내구재의 비율

| 내구재명  | 보유 비율(%) | 내구재명 | 보유 비율(%) | 내구재명    | 보유 비율(%) |
|-------|----------|------|----------|---------|----------|
| 김치냉장고 | 42.7     | 오디오  | 82.1     | 에어컨     | 48.1     |
| 전자렌지  | 88.5     | 비디오  | 97.8     | 냉장고(소)  | 30.5     |
| 가스오븐  | 42.8     | 캠코더  | 31.7     | 냉장고(대)  | 74.4     |
| 식기세척기 | 14.1     | 청소기  | 95.0     | 승용차(소형) | 39.2     |
| 세탁기   | 98.9     | 피아노  | 52.2     | 승용차     | 57.5     |
| 의류건조기 | 4.8      | 노트북  | 14.6     | 스키세트    | 8.8      |
| 정수기   | 51.7     | 컴퓨터  | 94.1     | 골프세트    | 15.4     |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전자렌지,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청소기, 컴퓨터 등은 대부분의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내구재인 것으로 보이며, 의류건조기, 스키세트, 골프세트, 노트북 컴퓨터, 식기세척기 등은 아직 일상적인 내구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가계 경제 영역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월소득 및 월지출, 보유자산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평균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집단의 평균액수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자기 가족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평가를 보면 부적절함(33.1%), 그저 그렇다(39.5%), 적절함(37.4%)으로 큰 차이 없이 골고루 응답하고 있다.

<표 8> 월소득에 대한 진단

| 전체집단의 월평균소득<br>N=996 |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br>월평균소득<br>N=347 |
|----------------------|---------------------------------|
| 2,607,000원           | 3,568,700원                      |

먼저 평균 월소득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평가한 집단은 전체 집단의 37.4%인데,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56만 8,700원인데 비하여 전체집단의 월평균소득은 260만 7,000원으로, 상당히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진단할 수 있다.

전체집단의 월평균 지출액은 186만 8,000원이며, 가장 많은 비율은 교과목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외식비, 관리비, 교과목 사교육비, 교양오락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은 반면 예체능 사교육비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비슷하며, 통신비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다. 전반적으로 총지출액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제일 높다.

외식비가 적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월평균 외식비 지출액은 11만 2,000원인데, 실제 전체집단은 외식비로 한달에 1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어 기준에 비하여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비가 적당하다는 집단의 평균 관리비 지출액은 15만 8,000원인데 전체집단의 관리비지출액은 17만 1,000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다. 예체능 사교육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지출액은 17만 7,000원인데 비하여 실제 전체집단이 지출하는 비용은 14만 7,000원으로 기준보다 덜 지출하고 있다. 교과목 과외비 지출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지출액은 24만 1,000원이지만 실제로 전체집단의 평균 지출

<표 9> 비목별 월평균지출액에 대한 진단

단위 : 만원

| 비목       | 월평균지출액<br>단위:만원(표준편차) | 비목별 지출에 대한 평가<br>단위 명(%) |           |           | 적당하다고 평가한<br>경우의 월평균지출액<br>단위:만원(표준편차) |
|----------|-----------------------|--------------------------|-----------|-----------|--|
|          |                       | 줄여야 함                    | 적당함       | 늘려야 함     |  |
| 외식비      | 126(11.1)             | 223(24.4)                | 560(61.2) | 132(14.4) | 11.2( 8.8)                             |
| 관리비      | 17.1(10.6)            | 392(42.9)                | 504(55.1) | 18( 2.0)  | 15.8( 9.7)                             |
| 예체능 사교육비 | 14.7(17.4)            | 119(12.0)                | 443(44.5) | 433(43.5) | 17.7(15.2)                             |
| 교과목 사교육비 | 25.0(23.3)            | 198(23.1)                | 457(53.3) | 202(23.6) | 24.1(18.3)                             |
| 통신비      | 11.8( 6.2)            | 527(57.4)                | 362(39.4) | 29( 3.2)  | 9.9( 5.3)                              |
| 교양오락비    | 6.8( 7.2)             | 79( 8.8)                 | 473(52.7) | 346(38.5) | 7.3( 6.3)                              |
| 총지출액     | 186.8(77.5)           | 539(55.7)                | 338(34.9) | 91( 9.4)  | 180.8(74.5)                            |

액은 25만원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중 예체능에 대한 지출은 기준보다 덜하고, 교과목에 대한 지출은 기준보다 더 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한편 통신비의 경우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지출액은 9만 9,000원이지만 실제로는 1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있어 19,000원 더 지출하고 있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평균 7만 3,000원을 지출하지만 전체 집단은 평균 6만 8,000원으로 나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총 지출액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은 월평균 180만 8,000원을 지출하는 데 비하여, 전체 집단은 186만 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6만원 정도를 더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유한 자산에 있어서 현금과 부동산으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조사대상자가 보유한 현금은 평균 3,084만 4,000원이며, 부동산액은 평균 9,396 9,000원이다.

<표 10> 자산에 대한 진단

| 평균 현금자산액      |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평균 현금자산액 | 평균 부동산자산액     |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평균 부동산자산액 |
|---------------|------------------------|---------------|-------------------------|
| 3,084만 4,000원 | 6,669만 100원            | 9,396만 9,000원 | 1억 4,744만 3,200원        |

소유한 현금자산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액수는 6,669만 100원인데 비하여 전체 집단이 소유한 평균 현금자산액은 3,084만 4,000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금자산에 있어서는 진단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부동산 자산액이 1억 4,744만 3,200원이며, 이에 비해 전체 집단의 평균 부동산 자산액은 9,396만 9,000원으로 약 천만원 가량 못 미친다. 현금 보유액에서보다는 그 차이가 적지만, 역시 부동산 자산액에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가계 경제 영역에서 소득과 자산은 기준에 못 미치나 지출은 기준보다 상회하여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이 집단의 의사소통 항목별 평균점수, 문제해결능력 항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전체집단의 점수와 비교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한다는 집단이 6.3%, 보통이라는 집단이 35.4% 그리고 만족한다는 집단이 58.3%로 나왔다.

① 의사소통

가족원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가족원들이 함께 대화하는 것

을 즐기는가, 서로 상처를 주는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가, 서로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가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표 11> 가족원의 의사소통에 대한 진단

| 문항                                  | 빈도 (%)     |            |            | 평균(표준편차)   |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표준편차) |
|-------------------------------------|------------|------------|------------|------------|---------------------------|
|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 122 (12.3) | 347 (35.1) | 520 (52.6) | 3.50 (.90) | 3.91(.79)                 |
| 우리 가족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 137 (13.9) | 268 (27.3) | 577 (58.8) | 3.57 (.94) | 3.86(.92)                 |
| 우리는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가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 125 (12.6) | 301 (30.5) | 563 (56.9) | 3.50 (.88) | 3.91(.66)                 |
|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다                 | 86 (8.7)   | 304 (30.8) | 596 (60.5) | 3.60 (.79) | 3.87(.73)                 |
| 전체 평균(표준편차)                         |            |            |            | 3.54(.64)  | 3.88(.53)                 |

\* 두 번째 문항의 경우 그렇지 않다(5점) ~ 그렇다(1점)으로 점수화하였음

전반적으로 가족원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평균 점수는 3.54점으로 중간점수(보통이다)인 3점보다 높아 다소 긍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만족하는 집단의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는 항목의 평균점수가 3.91인데 비하여 전체집단은 3.5점으로 기준보다 낮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항목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족원의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 기준보다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정도나 수준에 있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가족원의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을 통한 가족원의 적응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는가의 정도, 가족원끼리 어려운 문제를 협력하며 해결하는 정도, 가족 모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지는가 그리고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만족하는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 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집단의 점수를 비교, 진단하였다.

<표 12> 가족원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진단

| 문항                                | 빈도 (%)        |               |               | 평균(표준편차)       |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의 평균(표준편차) |
|-----------------------------------|---------------|---------------|---------------|----------------|-------------------------|
|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이 되도록 한다    | 67<br>(6.8)   | 202<br>(20.5) | 717<br>(72.7) | 3.79<br>(.80)  | 4.06(.66)               |
|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 60<br>(6.1)   | 208<br>(21.2) | 713<br>(72.7) | 3.83<br>(.79)  | 4.12(.65)               |
|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 142<br>(14.6) | 332<br>(33.8) | 507<br>(51.6) | 3.43<br>(.88)  | 3.72(.82)               |
|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한다             | 345<br>(34.9) | 329<br>(33.2) | 315<br>(31.9) | 2.92<br>(1.06) | 3.17(1.01)              |
| 우리 가족은 무슨 결정을 할 때 식구가 함께 의논해서 한다  | 132(13.3)     | 282(28.6)     | 575<br>(58.1) | 3.46<br>(.80)  | 3.88(.74)               |
| 전체 평균(표준편차)                       |               |               |               | 3.50(.68)      | 3.80(.57)               |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집단의 문제해결 영역 평균점수는 3.50점으로 긍정적인 편에 속하는데, 포함되는 문항별 점수차이가 의사소통 영역에 비하여 큰 편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의 점수가 가장 높고,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한다'의 점수가 가장 낮다. 항목 중 가사노동분담을 제외하고 다른 문항을 모두 평균 3점을 넘어 긍정적인 데 비하여 가사노동분담에 있어서는 3점에 미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가사노동분담이 원활히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의 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진단하여 보면, 의사소통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에 있어서 준거 집단의 평균점수가 더 높고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이 기준에 비추어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문제해결 능력 전체 평균에서도 기준이 되는 집단의 평균점수는 3.80인데 비하여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3.50이다.

이상으로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두 영역 모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V. 결과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한 가정생활설계의 중요한 과정인 '진단'에 초점을 두어,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의 기준을 마련한 다음 이 진단기

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가정생활설계는 다양한 가정생활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제한된 가정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하나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가정생활을 생활시간 영역과 물적 자원 영역, 가계경제 영역 그리고 가족원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영역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 구조화된 질문지 1200부를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회수된 995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여 영역별 진단의 기준을 선정하였고, 이 진단의 기준을 통하여 전체 가정생활의 영역별 실태를 진단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생활시간 영역에서는 영역별 생활시간의 분배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평균시간량을 기준으로 전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진단하였는데, 전체집단의 경우 수면·의생활관련 집안일·주생활관련 집안일·구매 및 가계관리에서는 진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배분을 나타내었다. 반면 식생활관련 집안일,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 TV시청에 있어서는 진단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단란에서는 진단기준에 못 미치는 시간량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과 교육이 포함되는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 영역에서는 진단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량을 배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본 연구의 대상인 학령기 가족이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에 대한 높은 표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여가활동에서는 모임이나 교체,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운동, 강습/취미활동, 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가족나들이나 여행 등의 영역에서는 더욱 늘려야 한다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여가활동 참여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참여정도를 기준으로 전체집단을 진단하여 본 결과, 운동, 모임이나 교체, 강습/취미활동에서 모두 진단기준에 못 미치는 참여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문화활동과 사회봉사활동에서도 기준에 못 미치는 참여를 보이고 있지만, 가족나들이나 여행에서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참여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나들이나 여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응답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아, 여가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높은 요구와 표준을 나타내고 있다.

물적 자원 영역에서 주거환경 및 주택 부분을 보면, 평균 주택면적 및 가족원 1인당 면적, 평균 방갯수 및 방당 가족원수 모두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구재 보유 역시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보유갯수인 12.7개에 미치지 못하는 11.9대로 나타났다. 또한 내구재 보유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전자렌지,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청소기, 컴퓨터, 정수기, 피아노, 대형냉장고, 중형승용차를 보유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반면 식기세척기, 노트북, 골프세트, 의류건조기, 스키세트 등을 보유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

상가정이 일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재 그리고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내구자를 구별할 수 있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물질 자원 영역은 진단기준보다 낮은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끝으로 가계경제 영역을 보면, 월소득이 적당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평균 월소득 356만 8,7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조사대상가족의 액수는 260만 8,000원으로 나타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월지출은 기준이 되는 180만 8,000원보다 더 많은 186만 8,000원으로 나타나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가계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현금자산은 6,669만 100원인데, 이에 비하여 전체집단의 보유 현금자산액은 평균 3,084만 4,000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식한 집단이 평균 1억 4,744만 3,200원인데 비하여, 전체집단이 보유한 부동산액은 9,396만 9,000원으로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계경제 영역에 있어서 월소득, 자산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영역을 보면, 모든 항목에서 진단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항목에서는 중간점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해결능력 영역의 가사분담 항목에서는 중간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가사분담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생활진단지표와 기준'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생활진단지표와 기준

| 생활시간영역       |                       | 가계경제 영역            |                  |
|--------------|-----------------------|--------------------|------------------|
| 항 목          |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하루 평균시간 | 항 목                |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평균 |
| 수면           | 419.8분                | 월평균소득              | 3,568,700원       |
| 식생활 관련 집안일   | 173.5분                | 월평균지출              | 1,808,000원       |
| 의생활 관련 집안일   | 82.3분                 | 부동산자산액             | 147,443,200원     |
| 주생활 관련 집안일   | 86분                   | 현금자산액              | 66,690,100       |
| 자녀/가족원 돌보기   | 150.2분                | 내구재                |                  |
| 구매 및 가계관리    | 68.4분                 |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보유갯수 | 12.7개(총 21개 중)   |
| TV시청         | 125.6분                |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       |                  |
| 가족과의 단란      | 130분                  |                    |                  |
|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 |                       |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영역   |                  |
| 항목           | 적당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평균      | 항목                 | 만족하는 집단의 평균점수    |
| 주택면적         | 29평                   | 의사소통               | 3.88점(5점 만점)     |
| 1인당 면적       | 7.1평                  | 문제해결능력             | 3.80점(5점 만점)     |
| 방갯수          | 3.03개                 |                    |                  |
| 1인당 방갯수      | 0.75개                 |                    |                  |
| 방당 가족원수      | 1.39명                 |                    |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시간 영역에서 많은 생활의 내용들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적당한 생활시간분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TV시청 혹은 식생활 관련 집안일처럼 기준보다 다소 많은 시간량을 나타내는 영역들에 있어서 어떻게 시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는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함에도 불구하고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는 사실로부터 조사대상가족이 이 생활영역에 대한 표준을 높게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다. 따라서 가정생활 설계에 있어 목표를 인식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목적적 자원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자녀나 가족원돌보기가 전반적인 가정경영에서 차지하는 의미, 이와 관련된 가족원의 목표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지나친 교육열이나 교육투자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부정적 소지를 함께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과의 단란시간이 기준보다 적고, 이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생활내용에서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가족과의 단란시간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가정생활설계의 진단 다음 단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가활동에 있어서 모임이나 교제,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운동, 강습/취미활동, 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가족나들이나 여행 등 많은 영역에서 더욱 늘리기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통하여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그리고 갈수록 증대되는 자유시간과 여가예의 욕구 등을 종합하여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택, 주거환경, 내구재 등 물질 자원에서 전반적으로 본 조

사대상자 가계가 처한 양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편리하고 개성적인 삶, 생활의 질적 향상, 생활만족도 증진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정도로 물질 자원을 조성하고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기준에 못 미치는가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주거

기준과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세워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구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가계경제 영역에서 월소득, 자산 등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월지출은 기준보다 더 높아, 가계경제의 안정성과 균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통하여 소득과 지출의 균형, 이를 통한 가계경제의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가정생활설계에서 우선적으로 관심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균형과 안정이라는 차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은 중요한 인적 하위체계로서 가족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탐색, 의사교환, 의사결정,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환경에 둘러싸인 가정이 합목적적으로 가정생활설계를 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진단결과를 나타낸 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 적응능력 증진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사분담 항목에서 조사대상집단의 점수가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양성 간 민주적이고도 평등한 가사분담 등을 목표로 가족원의 의식과 생활 상에서의 변화와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이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들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축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가정생활주기를 학령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가정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진단기준 선정과 적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체 가정생활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취업주부 가정, 또 다양한 가정생활주기의 가정을 대상으로 자료가 축적되어 가정생활설계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학의 학문적 목표인 실천성이라는 차원에서, 연구자들이 축적한 연구의 결과가 일반 가정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가정생활설계에 있어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가정생활의 문제를 파악하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가 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척도들을 보다 단순화·표준화하여 자기가정 진단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일반 가정의 구성원들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략하게 표준화된 가정생활진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보다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표준화된 가정생활진단 프로그램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통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한 가정복지사업, 주부/가족 대상 인터넷 사이트, 생활대학 연구소의 대주민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급경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접수 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7월 29일

**[참 고 문 헌]**

구혜령·조영희(2000).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를 통한 가정자원 관리학 연구의 현장실천성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27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4-33.

김경자(1998).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김수연·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35-6, 205-219.

김혜선·박희성(2001). 텔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125-143.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9). 가정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 '건전한 가정 우리가 가꾸어요'.

서울특별시(1997).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보고서.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45.

송혜림(2000). 주부 대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이기영·구혜령·송혜림·이승미(2001). 가정생활설계를 위한 분석 및 진단프로그램 - 가정자원관리영역의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 29차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 <가정관리학분야의 통합적 실천> 자료집**, 85-95.

이기영·김희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이기영·송혜림·이승미·구혜령·김유경·김선미(2001). 가정생활구조분석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37-149.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학지사.

이승미(1997). 가족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우(1992). **가정기구관리론**, 수학사.

임정빈(1997). 가정학 전공자는 가정복지사이다. **한국가정관리학회 22차 임시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20.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75-88.

지영숙·이영호(2000). 건전가정 운영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 생활설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8차 학술대회 자료집**, 26-43.

지영숙·이영호(2001).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21-232.

최연실(1996). 가족 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한국여성개발원(2001). **2001 여성통계연보**.

홍형욱·강순주·권오정·이경희·주서령·최재순·최정신(1998). 서울

- 시 거주자의 주택상담과 자료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71-82.
- 황덕순(1998). 가계의 재정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Deacon R. & Firebaugh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Allyn & Bacon Inc.
- v.Schweitzer(1968). *Einführung in die Haushaltsanalyse*. Frankfurt:Mewes-Druck.
- v.Schweitzer(1983). *Haushaltsführung*. Ulmer Verlag.